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학부모들은 공립학교 교육에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공립교육향상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주정부와 함께 전개했던 교육운동

## 바이든 정부, 코로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보건복지부 90일 재연장 발표...종로시 60일 전 공지 방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로 90일 연장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5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입원율과 사망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은 앞으로 90일간 계속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 공중보건 비상사 >>6면으로 계속

## 여론조사서 MA 학부모들 공립학교 교육에 높은 점수

팬데믹 학력 저하에도 부모들 자신의 자녀 학력에 자신감 수업중 소규모 그룹 튜터링 또는 방과후 튜터링 압도적 찬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이 자신의 자녀들이 현재 학년수준에 학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스INC(MassINC)가 매사추세츠 에듀케이션트러스트의 후원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 24%의 학부모만 자신의 자녀가

학년수준에 학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시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개인교육플랜(IEP)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낮은 학부모들은 학년수준의 학력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학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40%는 A마크를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단 등단한 보스톤 시인 고경아, 첫 시집 출간

###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 출판 한국과 미국 오가며 낳은 최근작 50편 엮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30여년간 보스톤에서 거주해온 고경아 시인이 첫 시집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이하 그 섬 비올라 소리)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계간 『문장』을 통해 등단한 시인 고경아의 최근작 50편이 실렸다. 한국의 고향과 미국 보스톤을 오가며 느끼고, 아파하고 사랑한 온갖 마음의 풍경들이 담겨 있다.

브루클라인 소재 체스넛힐몰 내 클레이즈드바이츠에서 9월 만난 시인은 늦깎이 시인 데뷔에 대해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한 뒤, 예술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다가 시를 공부하게 됐다”고 했다. 글쓰는 재주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는 시인은 초등학교 때 백일장 경복지역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뒤늦은 시인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안상학 시인은 ‘추천의 말’에서 ‘고경아 시인의 시는 인생의 느지막한 무렵에나 깊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노래’라고 이름 짓고

는, 그것은 ‘비록 “내일은 꽃이 아니라 해도”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노래의 것으로 독자들을 모으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

또, 문학평론가 한경희씨는 발문(跋文) ‘낮은 그리움으로 존재의 소리를 듣다’에서 “시인의 시를 ‘사물의 소리를 읽는 시간’, ‘더 긴장하고 낮설어지는 그리움’, ‘세상의 사물에서 발견해 낸 소리’로 대변해서 읽는 이에게 고경아가 낳은 시의 행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학원에서 시창작 수업을 듣고 다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는 멘토인 엄정희 교수(북체즈대표)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시인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부군은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경아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물으니 “내 몸의 먼지들이 떨어져 별이 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새해를 맞아 시인의 시 〈일출〉을 전한



고경아시인

다.

쫓겨다기 여럿 꿈실대던가 하더니  
졸다가 지피다가/조바심을 내는가/  
낮은 하늘벽 고스란히 무너지나 싶  
었는데/화다닥 운해 가르고만 불덩  
이/ 육되지 않게 찢어버린 단단한/  
저기막힘/전율/이슬아래 숨죽였던  
풀잎은 은빛 왕관을 이고/지난 밤찌  
꺼기는 어찌면 만져지지도 않는가

니즈시인선 11 고경아 詩集 『그 섬에서 비올라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니즈출판:150쪽,10,000원)  
bostonkorean@hotmail.com



## H 마트 2023 새해맞이 특별 봉투 증정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H마트가 2023년 설을 맞이하여 2023년 1월 13일부터 설맞이 특별 봉투를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세이빙 카드(Smart Savings Card)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H마트에서 \$88이상 구매 시 설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마트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에게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라며 “H마트 설 봉투에 행운, 축복과 번영의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회원 카드로 1,000 포인트(\$1=1point) 적립 시 10달러 H마트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매장 내 고객센터센터뿐만 아니라 H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Apple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매장별로 하면 된다. ▶별링턴점(781-221-4570), 케임브리지점(857-209-2747), 쿤지점(857-392-5029)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메가밀리언스 잭팟 13.5억달러로 불어나

13일 금요일 밤 11시 추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0일 또다시 당첨자가 없어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13.5억 달러로 불어나났다. 10일 11억달러였던 잭팟의 당첨 번호는 7, 13, 14, 15, 18이었으며 메가볼은 9번이었다.

앞서 미 복권 역사상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1조2천480억 원)를 넘은 것은 4차례로, 이번 당첨금은 역대 5번째로 큰 금액이다.

10일 1등 당첨자는 없었으나 다섯 숫자는 같고 메가볼 숫자만 다른 16명이 2등으로 당첨돼 최대 3백만달러를 받게 된다.

매 사추세츠에서는 로렌스(Lawrence)의 재클린 슈퍼마켓(Jacqueline Supermarket)과 체스넛

힐에 위치한 웨그먼스에서 각각 1백만달러의 2등이 당첨됐다.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역대 최대 당첨금인 20억4천만 달러(2조5천459억)를 기록한 바 있다.

다음 추첨일은 13일 금요일이며 잭팟은 13.5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시불로 인출했을 경우 7천만7백90만달러에 달한다.

복권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메가밀리언스는 일반이 불운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13일의 금요일에 6번이나 잭팟이 당첨됐다. 이번 금요일도 또다시 행운의 날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시간 주는 13일 금요일에 2008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7년 4차례나 잭팟에 당첨됐었다. 다른 두번의 13일 금요일 잭팟은

2009년 뉴욕, 그리고 2015년 오하이오였다.

메가밀리언스는 숫자 1~70 사이에서 5개를 선택한 뒤 1~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이다. 1달러를 더 내면 메가플라이어(Megaplier)를 선택할 수 있고 잭팟을 제외한 2등 이하의 당첨금을 따로 추첨하는 배수만큼 곱해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메가플라이어를 선택해 3달러를 지급하고 4자리 숫자가 맞았다고 가정하면 당첨금은 500달러이다. 그러나 메가플라이어 숫자가 3이 나왔다면 실제로는 1,500달러를 받게 된다. 메가밀리언스는 미국 45개 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hsn@bostonkorea.com



## 보스톤 세계 최악 교통체증도시 4위로 급등

시카고평균 1년에 155시간으로 미국내 최악, 전세계 런던, 시카고, 파리, 보스톤, 보고타 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지난해 무려 134시간을 범퍼투범퍼의 교통체증으로 도로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최악이며 미국내에서도 2번째로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으로 잠시나마 사라졌던 교통체증은 여전히 보스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릭스'(Inrix)가 공개한 '2022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는 런던이 156시간으로 '최악'이었고 이어 155시간인 시카고, 138시간의 파리, 보스톤, 보고타(122) 등의 순이었다.

6위는 이탈리아의 팔러모(121), 7위는 토론토(118), 9위는 뉴욕(117), 몬테레이(멕시코, 116), 필라델피아(114) 등의 순이었다.

보스톤은 운전자당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 금액은 연당 \$2,270에 달했다.

보스톤은 2021년에 비해 교통체증이 무려 71%나 악화돼 1년만에 가장 체증이 증가한 도시였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에 비해서는 약 10%가량 교통체증이 감소한 상태다.

'인릭스'는 전세계 50개국 1천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hsn@bostonkorea.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호로로 바뀌어 가는 코하세 30대 세 아이 엄마 실종 사건

## 신년 보스톤 언론들 대서특필, 쓰레기장서 쇠뿔과 혈흔 증거 찾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남쪽 해안가 위치한 타운코하세(Cohasset, MA)에 거주하는 3형제의 엄마, 애나 월시(Ana Walsh)의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스왓스카트의 쓰레기장에서 쇠뿔과 혈흔이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9일 실종의 단서를 찾기 위해 애나 월시의 남편, 브라이언 월시의 모친의 집 근처인 스왓스카트의 쓰레기장과 보스톤 남쪽 웨어햄 소재 쓰레기 에너지전환 공장을 수색했다.

현재 발견된 증거물들은 과학수사팀이 이를 분석중에 있다고 노퍽 디스트릭트 마이클 모리시 검사장은 10일 말했다.

올해 39세인 애나 월시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얼굴을 보이고는 이후 실종됐다. 그의 남편 브라이언 월시(47)는 현재 경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며 경찰은 지난 4일 애나 월시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

코하셋 경찰서 형사들과 주 경찰

은 화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월시 부부가 거주했던 코하셋타운 칩저스티스쿠싱하이웨이(Chief Justice Cushing Highway) 소재 자택에서 수색과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8일부터 계속 이 집을 수색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8일 수색에서 수사팀은 집 지하실에서 피가 묻은 손상된 칼과 혈흔을 발견했다. 한 보스톤 언론은 브라이언 월시가 인터넷으로 사체를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을 검색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에는 6세 이하인 3명의 형제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주 어린이 가족부(DCF)가 보호중에 있다.

당초 애나 월시의 남편 브라이언 월시는 자신의 부인이 1월 1일날 이른 아침 회사의 비상사태로 인해 라이드쉐어링 차를 타고 로건 공항으로 떠났으며 일하고 있는 워싱턴 DC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검찰은 애나 월시가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한 기록도 없으며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1월 3일 워싱턴 DC행 티켓이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1월 2일 월시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나갔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수사 당국은 그가 락클랜드에 있는 홈디포에 들렀으며 그곳에서 버킷, 테이프, 방수천막, 물걸레, 페인트용 바다갈래 등 \$450어치의 청소용품을 구입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 서퍽카운티 형사계 검사였던 빌랜드 검사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애나 월시가 1월 4일까지 실종신고가 안됐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남편은 “증거를 인멸하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나 월시의 휴대폰은 코하셋 집주소에서 1월 1일과 1월 2일 두차례 위치 추적 확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흔적이 끊겼다.

한편 애나 월시의 출신국인 세르비아 벨그레이드에 거주하는 그녀의 엄마는 9일 애나 월시가 새해 1주일 전 미국에 와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밀랑카 루비치치씨는 팩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 워싱턴 DC



실종된 애나 월시와 구속된 남편 브라이언 월시

에 외출 것을 당부했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부탁에 미국을 방문하지는 못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세르비아에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민들은 애나의 안전한 귀환을 바라고 있다.

애나 월시는 워싱턴 DC에서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매니저였으며 주말에 남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보스톤에 왔었다.

남편 월시는 로스 엔젤레스 수집가에게 가짜 앤디 워홀 그림을

\$80,000에 팔았다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현재 연방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과 그의 아내의 실종사건과 연결짓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보스톤 지역 및 미 전국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을 두고 "백인 여성 실종 신드롬"을 또 다시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보스톤 글로브의 경우 이번 실종사건에 대해 하루에 2-3건의 기사를 쏟아내며 집중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휴람 코리아 세라지컬 투어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 미국인들 크레딧카드 빚 급증, 대처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인들은 치솟는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상당부분 크레딧카드 빚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 같은 빚의 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트랜스유니언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을 평균 크레딧카드 사용자의 크레딧카드 잔액은 \$5,474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3%증가했다.

이는 2020년 수많은 미국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 크레딧 빚을 갚는데 사용해 크레딧 카드 비용이 줄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크레딧카드 빚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각 가정의 재정상황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 일상적인 물건 구입에 크레딧카드 사용

인플레이션이 소득을 넘어서자 사람들은 일상 비용을 크레딧카드에 의존하고 있다.

뱅크레이프의 수석 분석가인 테드 로스맨은 “과거처럼 휴가나 쇼핑을 위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아주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에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갚아내지는 못한다” 고 지적했다.

워싱턴 주 스포캔에 거주하는 파트타임

관리인인 멜 머피는 렌트비용이 전체 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타고 있는 차가 고장나거나 늙은 고양이가 수술이 필요할 때 크레딧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다” 고 털어놨다.

크레딧카드 금액을 매달 전액 갚는 사람은 드물어

뱅크레이프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잔액이 증가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해 39%에서 46%로 늘었다.

“카드 보유자들의 절반은 매달 빚을 안고 있으며 이 빚은 점차 더욱 비싸지고 있다” 고 로스맨은 말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카드보유자들은 잔액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0만불 이상의 소득자들도 37%가 자신들의 빚을 매달 전액 정산하지 않는다.

### 카드 이자는 더욱 높아져

크레딧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6%에서 거의 20%로 높아졌다. 이는 1년새 최대의 증가폭이다. 연준은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으며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크레딧카드 비용도 오르게 된다.

문제는 10명 중 4명의 크레딧카드 보유자들은 자신의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매달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최소상환액은 한달에 몇불정도만 오를 수 있지만 세심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10년 이상 카드빚이 이어질 수 있다” 고 로스맨은 말했다.

### 크레딧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카드 빚을 당장 갚아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부 카드는 0%이자율 밸런스트랜스퍼(balance transfers)를 제한된 기간 안에 제

공하기도 한다. 또한 저 이자율 개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면 크레딧카드 이용 혜택을 생각말라

저 이자율의 카드를 찾는 대신 캐시백 같은 리워즈를 먼저 생각하는데 만약 잔액을 남기는 경우는 잘못된 판단이다.

또는 2%의 캐시백을 위해 무려 20%의 이자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렴한 이자의 크레딧카드를 먼저 선택하고 잔액이 없는 경우만 캐시백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지적한다.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업체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1월 11일부터 코로나 백신, 검사, 치료 모두 무료로 전환될 뻔

### 1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보험 없으면 전액 부담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공중보건비상사태가 1월 11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어 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제 그리고 백신 등이 모두 유료화로 전환된다. 그러나 11일 바이든 정부는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 유료화를 면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 1.5의 확산세가 미국 전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일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 1.5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동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에서 XBB 1.5는 전체 감염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내 감염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XBB 1.5는 오미크론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5개의 새로운 변이를 포함하고 있다.

텍사스 A&M의 글로벌건강연구단지의 수석 바이러스학자 벤 뉴먼 씨는 지난 6일 소수민족언론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와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변이는 항체를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기존의 코로나보다 쉽게 인간의 허파조직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왓츠 헬스케어의 최고의료책임자인 올리버 브룩 박사는 이날 브리

핑에서 백신접종과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먼 박사는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났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라고 말하고 지난 3년동안 미국내 사망원인 중 심장병과 암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 3번째라는 것을 지적했다.

뉴먼 박사는 “RSV는 11월에 절정을 이뤘고 플루는 12월에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결코 감염이 완화된 적이 없다.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감염세가 지난해만큼 많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했다.

뉴먼 박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최초의 오리지널인 알파에 비해 8개의 변이를 가졌으며 현재의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는 무려 12개의 변이를 보유하고 있다. “급격한 감염증가에 근거하면 이는 유전자적 결정에 따라 번성하며 따라서 일부 면역력 요소를 극복했으며 아주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마치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직장에 복귀했고 다시 삶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브룩스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며 ‘백신에 대한 확신, 백신의 편리함 그리고 백신의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



말하고 미 보건당국이 이 세가지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 단 15%만 바이베일런트 부스터(개량 부스터백신)를 접종했다. 더구나 거의 사망직전에 이르렀던 성인들 중 3분의 1만이 이 백신을 접종했다. 부모들이 잘못된 백신 정보로 인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바람에 어린이의 경우 2차례의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낮다.

지난달 미 의회는 행정부의 비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비용 225억달러 예산 배정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지원이 마감됨에 따라 미국민들은 앞으로 보험이 없는 경우 \$120을 지불해야 한다. 미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인 팩스로비드 2천만 도스를 \$530에 구입했었으나 앞으로 2024년이면 모든 용량을 다 소비

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팩스로비드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게 될 수 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코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보험이 없스 미국인 2천7백50만명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UC샌프란시스코와 UC버클리는 지난 주 돌파감염, 재감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자료를 내놨다.

모든 종류의 백신은 감염률을 22% 낮췄다. 지난 한차례 또는 두차례의 감염은 감염률을 23% 낮췄다.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까지 된 경우에는 재감염율을 40% 낮췄다. 감취진 가장 큰 혜택은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점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 바이든 정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1면에 이어서  
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다. 최근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공중보건 예산 승인을 거부하면서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조정관인 애시시 자 박사는 그동안 반복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중증 및 사망을 방지하고 있는 덕에 과거보다 미국은 훨씬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해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최종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종료될 경우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Telehealth)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할 경우 내달에는 관련 방침이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미국 내 하루 확진자는 6만7천여명이며 약 390명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로 집계됐다.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11일 겨울철 재난 대비상황을 보고받는 회의에 참석한 모라힐리 주지사(사진 오른쪽)와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사진=주정부 제공)

# 주지사, 의회 모두 민주당 집권, MCAS 드디어 달라지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주당 주지사 및 의회체제가 들어서면서 매사추세츠의 표준화력 평가 시스템인 MCAS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육가들은 꾸준히 MCAS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매사추세츠종합평가시스템의 준말인 MCAS는 1993년 교육개혁법으로 탄생했다. 학교의 성적과 책임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1998년 첫 시험이 실시됐으며 2003년부터는 충분한 점수를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의무화됐다.

MCAS는 학생의 개별적인 성적도 학부모들에게 통지 되지만 사실상 교사의 수업평가와 학교의 성적 관리에 주목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 매사추세츠 최대 교원 노조인 매사추세츠교사연합(MTA)은 오랫동안

MCAS에 반대해왔다. 매사추세츠 상원 캐린 스피카의 장은 WCVB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MCAS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충분히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MTA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주지사의 교육개혁안에서도 MCAS에만 의존하지 않고 8개 공립학교의 신규 평가시스템인 매사추세츠 혁신교육평가컨소시엄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교육가들은 표준평가시험이 교사들에게 시험을 위한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과 ELA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시험치르는 기술”이라고 MTA 부회장인 텀 매카시는 지

적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표준평가시험을 통과해야 고교 졸업장을 내주는 8개 주 중의 하나다. 이는 1990년대 중반 26개주에서 대폭 줄은 것이다.

“점차 많은 정치인들은 졸업 필수화가 결코 교육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수많은 학생들에게 학교 과정을 마쳐도 졸업장을 갖지 못해 중퇴를 강요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리 페더 페어테스트 대표는 밝혔다.

제프 라일리 주 교육부 커미셔너를 비롯한 교육가들은 MCAS 점수는 학교의 교육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교육원은 다음 고교 1학년부터 졸업요건 점수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MCAS는 교육부가 학교의 교육 수준과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이다.

## 여론조사서 매사추세츠 학부모들 공립학교 교육에 높은 점수

▶▶1면에 이어서  
그리고 41%는 B마크를 주어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73%의 매사추세츠 학부모들은 매사추세츠 학교시스템이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적 뒤떨어진 학생들의 부모들 중 56%만 그렇다고 대답해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실시된 매사추세츠 종합평가시스템(MCAS)시험은 2021년과 비교해 혼합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수학과 과학 성적은 올라갔지만 영어 성적은 2년 연속 하락했다.

제프리 라일리 교육부 커미셔너는 지난 10월 “국제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학력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도 예외는 아니다” 라면서 “매사추세츠는 가장 우수한 주에 속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손실을 매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특히 학교에서 튜터링을 제공한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내에 소그룹 튜터링을 제공할 경우 74%의 학부모들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중 38%는 매우 찬성이란 답을 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애프터스쿨

튜터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66%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매우 찬성하는 부모는 30%, 일부 찬성이 36%였다.

서머스쿨에 대해서는 19%의 부모만 찬성했으며 봄 여름 방학 때의 경우 단 11%만 튜터링을 찬성했다. 유색인종 부모는 관심이 많았고 백인 학부모들은 방학동안의 학습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특수교육인 IEP를 받은 학생은 전체 응답 학부모의 31%를 차지했으며 라티노의 경우 40%로 가장 높았고 흑인 35%, 백인 30% 그리고 아시아인이 21%로 가장 적었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은 학교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44%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56%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충분한 정신건강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매사추세츠 주내 1519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1월 7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온라인 또는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톤 주안예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 IRS 벤모,페이팔 등 \$600이상 세금 보고법 1년 연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 벤모, 페이팔, 캐시 앱 등에서 \$600 이상 거래에 대해 세금 양식을 보내도록 한 의무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체를 이용해왔던 개인들에게 이 같은 의무화 연기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2021년 \$20,000이상의 거래에 대해 세금보고 양식을 발행하기로 했던 것을 \$600로 낮춰서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전환기로 이용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디지털 결제업체들에게 \$600 이상의 거래를 시행한 납세자들에게 1099-K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한 법안은 2021년 미국민구제법안(ARP)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과거에는 \$20,000 이상이었던 뿐만 아니라 200회 이상의 거래일 때만 이 양식을 보내도록 했었다.

IRS는 이 법이 개인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주는 선물, 가족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 등을 추

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와 사업체의 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양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베이의 경우 현재 \$600의 한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중고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베이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 시행의 연장은 의회의 당부로부터 비롯됐다. 민주당 양당의 의원들은 \$600의 한도를 올리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를 법안으로 변경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신 의원은 "재무부와 IRS가 이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법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부담한 부담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전산오류 탓 한때 항공운항 올스톱 9·11 후 첫 전국적 마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전산 시스템 마비에 따른 국내선 운항 중단 여파로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항공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8천여편의 항공이 지연되고, 1천200여편은 아예 운항이 취소됐다.

연방항공청(FAA)이 이날 오전에 전산 정보 체계 '노탐'(NOTAM) 오작동을 이유로 발령한 운항 중단 명령은 발령 90분이 지난 오전 8시 50분께 해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운항 지연 등 연쇄 효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지연 출발과 연착, 결항이 줄줄이 이어졌다.

시카고 등 일부 공항은 FAA의 운항 중단 명령 해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한동안 이륙을 중단해 피해를 가중했다.

시스템 복귀에도 여파는 여전히 이어져 항공 지연 및 운항 취소에 따른 전체 피해는 한동안 계속됐다.

9·11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국적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말 그대로 예고도 없는 카오스에 빠져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이동이 많은 시기인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로 발



운항이 중단된 미국 시카고 공항

생한 사우스웨스트발 항공대란의 악몽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진 항공 마비에 수많은 여행객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최소한 반나절 이상을 공항에서 허비해야 했다.

제대로 된 일정 공지를 받지 못해 공항 의자마다 몇 시간째 비행 재개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복색통을 이뤘고, 비행이 끝내 취소돼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장 정부의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전국적 혼란이 빚어진 만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승객들의 분노가 마땅한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뉴욕 올버니에서 항공이 지체된 제스 맥킨토시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없다"며 "아무도 교통안전청(TSA) 요원에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다보니 항공사 역시 승객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한돼 함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예약했다는 한 승객은 NYT에 "항공사 직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며 "그들이 여러 차례 자신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 안내까지 듣고도 대기하다 결국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비즈니스 마실은 삼촌과 함께 올란도 국제 공항에서 오전 7시25분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편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 방송까지 들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이륙 중지 가운데도 착륙은 허용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 국제선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HURAM | 성형외과

연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다양한 고민, 부담 없이 해결하세요!

목소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성형  
성형 후 피부 관리도 함께! 피부 관리, 피부과와 연계하여 의료관광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비	수술비	환원비	HURAM 성형이벤트
151,000	151,000	660,000	1-6인 전용 호텔 숙박
435,000	365,000	535,000	660,000
330,000	264,000	220,000	550,000
			220,000
			110,000

김수남  
1554-3421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 새해 오분 요가 챌린지: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희망찬 2023년 새해 모두 잘 시작하셨나요? 매년 이맘때면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계획이 너무 거창하거나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일 경우는 며칠 못가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달은 더도 말고 아침에 딱 5분만 내어 나를 위해 움직이고 호흡하는 시간을 갖아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침잠이 많으시거나 아침시간이 늘 분주하신분들도 평소보다 5분만 일찍 기상하셔서 저와 함께 오분 순삭요가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는 제 유튜브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에서 오분 순삭요가 챌린지 Day2 어깨통증과 나쁜자세 바로 잡아주는 스트레칭 편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만세하듯이 천정쪽으로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접어 갈비뼈 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3단계 알파벳 V와 W을 연상하며 들숨에 V, 날숨에 W자의 모양을 만들어 가슴 앞면을 넓게 열어줍니다.

4단계 10회정도 매일 반복하면 척추 주변 등근육이 생기면서 굽은 등도 펴지고 예쁜 직각 어깨라인 만드는데도 효과 있을 거예요.

TIP! 목이 긴장하지 않게 어깨를 귀에서 멀리해 목 옆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http://www.yogafullness.life)

## 1. Thoracic Twist: 등, 허리, 어깨 통증 완화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사진처럼 한손을 머리옆에 두고 팔꿈치를 천정쪽으로 올립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천천히 그 팔꿈치를 반대쪽 팔꿈치쪽으로 가져옵니다.

3단계 5-10회 정도 반복한 후 팔을 뻗어 어깨와 가슴앞면을 좀더 확장하며 스트레칭을 느껴봅니다.

4단계 영상을 보며 다리를 로우런지 자세로 바꿔 한번더 시도해보세요.

TIP! 호흡과 함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해주시고, 들숨에 가슴을 확장하고 날숨에 코어의 힘을 이용해 크런치 동작을 통해, 등과 갈비뼈 부분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봅니다.

## 2. Cactus Stretch: 굽은 등 자세교정 해결

1단계 서서 혹은 앉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 범죄공포에 뉴욕 아시아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아시아계로서 내 등에 더 큰 과녁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뉴욕시 퀸스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캐런 왕(48)씨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요즘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며 치안 악화에 불안감을 털어냈다.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그는 "이번 투표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다. 내 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뉴욕을 비롯한 진보 성향 주에서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지층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작년 11월 중간선거 때부터 공화당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고 NYT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리 켈딘 뉴욕주지사 후보가 중간선거에서 현직인 캐시 호컬(민주) 후보를 거의 따라잡을 뻔한 것도 아시아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와 퀸스 동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덕분이었다.

NYT는 중국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시아계 유권자 2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대체로 범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켈딘 후보를 찍은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이민자 보호, 교육과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정책이 뉴욕의 범죄율 급증을 초래하고 결국은 아시아계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소외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직전에 중국계와 한국계가 많이 사는 퀸스 플러싱 일대에서는 민주당을 불법 이민자 증가와 범죄 급증의 원인의 제공자로 비판하면서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영어와 중국어 전단이 곳곳에 붙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2월 맨해튼의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노숙자의 흥기에 목숨을 잃은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의 죽음이 호컬 주지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전단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던 뉴욕시 엘리트 특목고들의 입학 절차를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도 아시아계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아들을 뉴욕의 한 특목고에 보낸 홍콩 출신 여성 라일링 위(58)씨는 "내가 왜 우리를 차별하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3월 뉴욕시 타임스스퀘어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항의시위하는 시민들

민주당 등록유권자였던 위씨는 거리에서 폭력 사건이 늘어나 50년 전 처음 미국에 이민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작년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켈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뉴욕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뉴욕주 전체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인종 그룹인 아시아계의 변심은 주의원 선거에서도 표출됐다.

현직 의원을 꺾고 브루클린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레스터 창(중국계)이 실제로는 맨해튼에 거주했다는 논란에 민주당은 그의 퇴출 추진을 검토했

나, "아시아계 공동체에서 강한 역풍이 불 것"이라는 한국계 론 김(민주)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포기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으로 선회한 아시아계 중 다수가 동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중국계 유권자들이 문화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호컬 주지사는 선거 후 그동안 민주당이 아시아계 주민들과 공공 안전에 관한 소통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치안 문제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firstcircle@yna.co.kr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소비자물가지수 12월 6.5% 올라, 6개월 연속 하락세

###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확인... '코로나' 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CPI 감소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감도... 2월 0.25%p 인상에 '무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달보다 6.5% 올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6.5%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 온 것이다. 특히 12월 CPI는 11월보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 CPI가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7%,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월까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4.3%로 1년여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연준이 이달 초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 인하는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12월 CPI가 개선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는 0.50%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인상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슈퍼마켓

## 아마존, 월말부터 프라임고객의 다른 사이트 구매 물품도 배송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인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이달 말부터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4월 '바이 위드 프라임'(Buy With Prime)이라는 프라임 고객들을 위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프라임 고객이 아마존이 아닌 판매자 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송, 결제, 반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마존은 일부 판매자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해온 이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는 미국 내 다른 사이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마존을 통해 물품을 판매해 온 판매자 사이트가 대상이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온 결과, 해당 사이트의 구매 고객

수가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또 제품에 대한 리뷰도 아마존 사이트가 아니라, 판매자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마존의 이런 서비스 확대는 구

매 고객을 늘리고 광범위한 물류 운영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존은 코로나19대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어나자, 창고를 늘리는 등 물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판매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커진 물류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피터 라슨 아마존 부사장은 "바이 위드 프라임' 서비스는 다른 사이트에 빠른 배송을 제공해 프라임 고객에게 가치를 더하고 판매자들에게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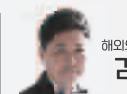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뉴욕 마라탕 건물에 자리 잡은 中 비밀경찰서...서류상은 향우회

## 회장은 뉴욕시장에 기부금... 중국 대사관 "중국인 돕기 위한 단체" 부인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중국이 미국 뉴욕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향우회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 시간) 미국내 중국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장소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있다고 보도했다.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술원 등 입주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층만 공란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물 바깥에서 확인할 경우 유리 벽에 중국 푸젠성의 창려 향우회를 의미하는 '미국창려공회'라는 시트지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 미 연방수사국(FBI)의 방첩부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 검찰과 함께 비밀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FBI와 검찰의 압수수색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다.

창려공회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2016

년 130만 달러(약 16억 원)에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우회 회장인 루지안선은 뉴욕 퀸스에서 요식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려공회는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정치헌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루 회장은 직접 4천 달러(약 500만 원)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창려공회가 지난해 개최한 모금 행사에 참석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NYT는 중국 당국이 뉴욕경찰(NYPD)에 합동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FBI는 이 같은 요구는 중국 경찰이 NYPD와의 합동 교육을 빌미로 미국에서 협박과 감시 등 불법행위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의 주미중국대사관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려공회에 대해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건물

## 대만 TSMC 작년 4분기 순이익 예상 개고 78% 증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세계 반도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순이익을 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순이익이 2천959억 대만달러(약 12조1천100억원)로 전년 동기(1천662억 대만달러) 보다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2천894억4천만 대만달러)를 웃돈다.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망치보다 낮았지만 첨단 반도체 판매에 힘입어 순이익은 증가했다.

TSMC는 미국 애플 아이폰과 맥

북에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한다.

앞서 TSMC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6천255억 대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나 시장 전망치(6천360억 대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TSMC 매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2년만이다.

TSMC는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웬펄 황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4분기는 연말 시장 수요 둔화와 고객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한 상황은 올해 1분기에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분기 매출을 167억~175억 달러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시장 전망치인

179억 달러를 밑돈다"며 "1분기는 글로벌 수요 둔화 속 TSMC가 4년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는 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TSMC는 올해 자본지출(설비투자) 목표액을 320억~360억 달러로 예상하며 전년도의 363억 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다만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을 포함한 제품에 힘입어 사업이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올해 전체 반도체 산업은 다소 하향세를 보겠지만 TSMC는 조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1,703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재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III. 신청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9천만원	4~8 등급 7.5천만원	9~14 등급 5천만원
----------------	------------------	-----------------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도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도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당국 · 정치권 '이자장사' 경고...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개시

### 농협은행, 주담대 금리 0.8%p 내려...우리은행, 우대금리 확대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안돼" 압박에 은행권 "시장금리 반영 시차 때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 은행권, 주담대 · 전세대출 금리 인하 잇따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p) 내린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에 따라 최대 연 0.9%포인트 낮췄다. 이날 기준 금리는 연 5.72~7.95%다.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해 실질 금리를 낮춘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본부조정 금리를 높였다.

또한 13일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7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다.

◇ 예금 금리 3%대까지 떨어졌는데...주담대 변동금리 오히려 올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중 1년 만기 기준 연 5%대까지 올랐으나 최근 3%대까지 밀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88~4.10% 수준이다.

예금 금리가 내린 것은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데 은행채 금리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11월 7일 연 5.107%까지 올랐다가 지난 11일 기준 3.974% 수준까지 내렸다.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같은 기간 오히려 상승했다.

KB · 신한 · 하나 ·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기준)는 이날 기준 연 5.35~8.11%다.

지난해 11월 11일 연 5.18~7.71%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와 비교하면 상 · 하단이 각각 0.399%포인트, 0.17%포인트 높아졌다.

◇ 금융당국 · 정치권 경고에 은행들 "만기 구조 차이 따른 단기적 현상"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 ·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 · 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

성 ·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아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코픽스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 발표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올해 1월 중순 발표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담대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sun@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13th - JAN. 19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 A VEGAN CHEF'S NEW ESSENTIAL: VEGAN KIMCHI

Now made 100% vegan, this recipe is perfect for beginners and vegetarians new to the exquisite world of Kimchi!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채식김치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b>Malanga</b> 말랑가 LB <b>\$1.29</b>	<b>Cilantro</b> 실란트로 EA <b>\$1.29</b>	<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	<b>Korean Singo Pear</b> 한국 신고배 BOX <b>\$34.99</b>
<b>California Shiranuhi Mandarin</b> 캘리포니아 한라봉 LB <b>\$2.99</b>	<b>Packed Garlic</b> 팩마늘 5 PCS/PKG <b>\$1.99</b>	<b>Ginger</b> 생강 LB <b>\$1.99</b>	<b>SOONYEOWON Tofu</b>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1.49</b>	<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Ox Tail</b> 생 소꼬리 LB <b>\$12.99</b>	<b>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b> 생 돈가스 LB <b>\$4.99</b>
<b>Fresh Pork CT Butt Chunk</b> 수육용 생 돼지목살 LB <b>\$5.99</b>	<b>Fresh Boneless Chicken Breast</b>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b>\$2.99</b>
<b>Frozen Beef Short Plate</b> 냉동 소 삼겹 양지 SLICED/LB <b>\$10.99</b>	<b>Marinated Beef Ribeye Bulgogi</b> 양념 소불고기 LB <b>\$7.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b>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b>\$6.99</b>	<b>Frozen Pollock 동태</b> 700-800'S/LB <b>\$2.99</b>
<b>HWAWOODANG Frozen The Original Gunsan Squid Seafood Stew</b> 화우당 군산 통오징어 해물탕 42.3 OZ/PKG <b>\$13.99</b>	<b>Frozen Salted Mackerel</b> 냉동 빛자반 고등어 2 PCS/1 손 <b>\$6.99</b>
<b>OHGWANG Tender Squid Sticks</b> 오광 촉촉 오징어 5.6 OZ/PKG <b>\$8.99</b>	<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 SMART CARD MEMBER ONLY

<b>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b> 가가야끼 쌀 15 LB <b>\$38.99</b>	<b>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b>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EA/PKG <b>\$14.99</b>
<b>JINGA Abalone Porridge</b>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b>\$10.99</b>	<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b>\$14.99</b>

<b>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b>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b>\$50.99</b>	<b>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b> 농심 너구리 4.2 OZ X 16 PKG/BOX <b>\$16.99</b>	<b>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b> 청정원 오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b>\$15.99</b>	<b>PULMUONE Original Japanese Style Udon Noodle</b> 풀무원 사누끼 우동사리 2.53 LB <b>\$4.99</b>	<b>HAIOREUM Dumpling Wrapper</b> 해오름 만두피 14 OZ <b>2\$4</b>
<b>SAJO DAERIMSEON Fried Soybean Curd</b> 대림선 주부 초밥짱 1.05 LB <b>\$5.99</b>	<b>HAIO Pancake/Frying Mix</b> 해오름 부침/튀김가루 2 LB <b>\$1.99</b>	<b>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b> 해오름 소면 5 LB <b>\$4.99</b>	<b>HAIO Canned Whelk</b>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b>\$5.99</b>	<b>HAITAI Ace Cracker</b>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b>\$3.99</b>
<b>CHORIPDONG Honey Citron Tea</b> 초립동이 꿀유자차 2.2 LB <b>\$4.99</b>	<b>MAEIL Biofeel Yogurt</b> 매일 요구르트 PLAIN - 2.19 FLOZ X 25 EA/PKG <b>\$5.99</b>	<b>JVR Stainless Food Container</b> JVR 스텐 밀폐용기 185 X 132 X 53 MM 700 ML EA <b>\$8.99</b>	<b>Dish Rack (Gray)</b> 꽃샘 한국산 자동 물빠짐 식기건조대 (그레이) 43.5 X 33.3 X 16.5 CM <b>\$21.99</b>	<b>HELLO! Electric Multi Cooking Pot</b> 헬로! 멀티 쿠킹 포트 PASTEL BLUE/PASTEL PINK 1.5 L/EA <b>\$24.99</b>

— 오늘 만든 생 떡국떡 —

## FRESH SLICED RICE CAKES

Freshly Made Today. Try it Now!  
 10 times chewier, 100% natural ingredients, produced daily  
 10배 이상 쫄깃한 식감, 100% 천연재료, 매일 생산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u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y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a@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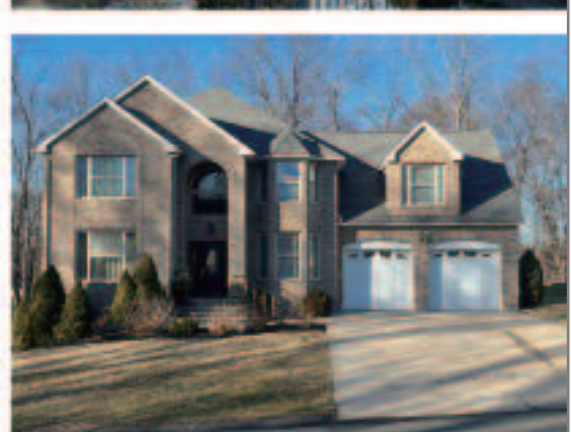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박성순**  
617.538.6973  
sp@bostonpremierrealty.com



**다혜연 김**  
617.217.2037  
da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정은**  
987.694.2043  
je@bostonpremierrealty.com



**나리 박**  
617.447.0591  
nari@bostonpremierrealty.com



**지덕주**  
617.780.7839  
jide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희**  
978.866.3248  
jheo@bostonpremierrealty.com



**이곤근**  
617.543.5728  
ego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9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희길 김**  
617.877.0387  
heegil@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정**  
617.538.6973  
sje@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81.935.3397  
hjun@bostonpremierrealty.com



**혜사송**  
213.503.0397  
heeso@bostonpremierrealty.com



**미카희**  
413.507.1402  
mika@bostonpremierrealty.com



**이필순**  
781.800.3412  
eui@bostonpremierrealty.com



**선길**  
781.690.4309  
seon@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9.5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차은경**  
617.515.1102  
eu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960.6655  
grace@bostonpremierrealty.com



**래이얼 김**  
617.852.7485  
rae@bostonpremierrealty.com



**선갈배**  
617.913.3369  
seon@bostonpremierrealty.com



**길기태**  
617.721.8088  
gil@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언 유**  
617.935.2713  
b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a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1.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938.7212  
lili@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8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dfolk**  
917.224.59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e**  
957.210.881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992.1191  
ritika@bostonpremierrealty.com



**Ben Florentino**  
617.775.9538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58.0409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형**  
857.280.0434  
seung@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8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202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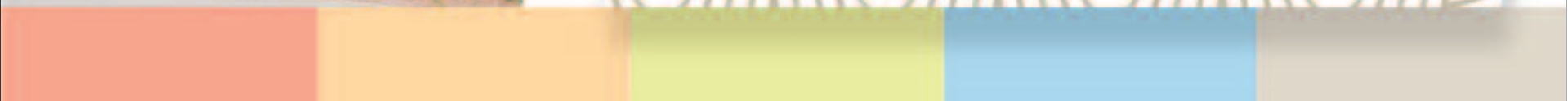
다가오는 2023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리미어 부동산 일동 올림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12<sup>TH</sup>-19<sup>TH</sup>, 2023

REG. \$13.99

\$9.99

4개에 2개 더!  
SPECIAL EDITION

4+2 (6ea)  
LIGHT STANDARD



라이트 스탠다드 동원참치  
5.29 OZ X 6 EA/PKG

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물은 한국연변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바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30

##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ne's (Doublyou) Parish in Boston, MA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 초이스 간판

###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 617.254.4654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일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19) 노벨 경제학자의 투자 교훈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2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한 자산이 반 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난무한다. 이 시점에 과거 장기투자의 결과를 알아보자. Vanguard S&P 500 ETF는 500 기업에 투자한 종목이다. 지난 1년은 마이너스 18.15%이었지만, 3년 연평균은 7.61%, 5년은 9.37%, 그리고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2.52%(12/31/2022)가 된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만이 작년 주식시장 폭락에도 높은 수익률을 받은 것이다.

연휴 동안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다. 저자는 카니맨(Dr. Kahnemann) 교수이며 책 제목은 '생각-빠르고 & 느리게 (Thinking-Fast & Slow)' 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니맨 교수의 투자 교훈을 함께 알아본다.

\*투자하는데 가장 커다란 잘못은 욕심이다. 욕심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카니맨 교수는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시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누구나 '나는 욕심이 많다.' 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며 후회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단지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뿐이다. 2022년 주식시장 상황이 1980년과 비슷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식을 무한하게 무시한다. (Almost unlimited ability to ignore our ignorance)" 카니맨 교수는 언급한다.

\*학회나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나온 일반적인 결론은 유망한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은 - 주식 선별하는 사람(일반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 모두 포함) 본인이 알게 모르게-

도박처럼 운에 기대한다는 것이다. 카니맨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주식 선별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느 주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 라고 정의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인 마음은 중요하다. 낙관적인 마음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하는데 낙관적인 마음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투자에는 투자 위험성이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로 얼마나 불어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이 얼마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얼마나 한 타격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일반 투자자는 무시한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너무 민감하면 결국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대부분 사람 심리는 같은 비율로 올라간 이익보다는 내려간 손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므로 내려가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선

택한다. 이 점은 투자한 돈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건강과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대부분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능력(Talent)과 운(Luck)이 따라야 한다고 한다. 노력은 후천적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타고난 재질과 운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 결과가 나쁘면 자기의 능력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와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으면 운보다는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자만심이며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 위험성을 무시한다. 이것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라는 사실을 새해에 다짐해야 한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라의 최초 중시(中侍418)는 화랑 출신의 죽지(竹旨)가 역임하였다. 그는 651년부터 655년까지 그 위에 있었고 차기는 문충이 이어 받았다. 죽지는 유능한 화랑으로 휘하에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대장군 김유신을 도와 모든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어떤 전투에 참전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득오가 지은 향가 '모죽지랑가' 와 함께 그의 출생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화랑세기에는 죽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아마도 풍월주나 부제를 지내지 않았기에 없는 것 같은데,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는 137명의 화랑도를 거느리고 득오를 찾아간 것으로 보아 화랑도 조직내에서 전방대화랑, 또는 좌우대 화랑으로 부제에 버금가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죽지의 생몰년 기록은 없는데 그의 아버지인 술종(述宗)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화랑세기에도 전한다. 술종과 죽지 부자의 기록을 모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죽지의 아버지 김술종은 대등으로 화백회의

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등 알천과 함께 칠성우(七星友)의 일원이었다. 화랑세기에 보면 술종은 김호립, 김알천, 김임종, 김염장, 김유신, 설보종과 함께 칠성우로 남산에서 만나 자작하면서 조정의 일에 간여하지 않았지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받들어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알천은 비담을 이어 상대등에 올랐다. 그의 임기는 진덕여왕의 재위기간과 일치한다(647~654년). 진덕여왕이 죽고 나니 성골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차기 왕위는 진골인 김춘추(태종무열왕)에게로 이어졌고, 상대등은 금강(金剛)이 올랐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데 일등공신인 김유신이 즉시 상대등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시 신라 조정의 권력구조가 후대에 전하는 것과는 다소 달랐다고 추정해 본다. 금강은 8세 풍월주를 역임한 문노의 아들이다(문노는 격검술이 신기에 달해 당시 그와 맞서 겨룰 자가 없었으며, 이후로도 그를 능가하는 무예/무술가는 기록상 등장하지 않는다).

술종의 아들 죽지의 생몰년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는 아마도 620년에서 630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삼국사기(기이, 제2 호소왕대)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인용해 보면,

"이전에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임지로 갔다. 삼한에 병란이 있어서 기병 3천 명이 그를 호송하였다. 일행이 죽지(죽지)를 따라가 보았

이르렀을 때, 한 거사가 길을 닦고 있었다. 술종은 이를 보고 찬탄하였고, 거사 또한 술종의 위세가 성대함에 서로 마음이 감동되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꿈속에서 그 거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을 보내 거사의 안부를 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거사는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하였다. 그 날이 바로 술종 부부가 꿈을 꾸었던 날이었다. 술종은 거사가 자신의 집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군사들을 보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내고, 돌로 미륵불을 만들어 무덤 앞에 봉안하였다. 부인은 꿈을 꾸는 날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이를 낳았다. 이름을 죽지(竹旨)라고 하였다. 장성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부수(副帥)가 되어 김유신과 함께 삼한을 통일하였고,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의 4대에 걸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한편 삼국사기에 보면 진덕여왕 3년(649년)에 백제의 장군 은상(殷相)이 쳐들어오자 장군 천존과 진촌 등과 함께 대장군 김유신의 휘하 장군으로 출전하여 도살성에서 백제군을 격퇴하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먼저 등장한다. 그때 죽지의 나이를 20~30세로 본다면 그는 620~630년 무렵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651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라 초대 중시에 임명되어 김유신과 함께 조정을 이끄는 유력 대신이 되었다(죽지는 655년까지 중시로 재임하였다). 그 후 백제 멸망(660년), 백제부흥군 토벌

(661년 4월 출정은 패하고 돌아왔다가, 동년 7월 출정은 승전하였다), 고구려 멸망(668년), 670년 나당전쟁 개전 당시에는 웅진도독부를 공격하여 성을 일곱 개나 점령하고 2천여 명을 죽였다. 671년에는 백제의 잔당들이 제기를 노리고 있는 가림성(加林城)을 공격하였고, 당나라와 군사와 석성에서 전투하여 5천 3백여 명을 죽였으며 백제의 장군을 비롯 다수의 포로를 잡았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만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7세기 격변기에 죽지의 활약상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418) 당나라의 문하시중을 참고하여 만든 직책으로 651년 진덕여왕 때 처음 시행된 관직이다. 당의 시중은 내각의 수장격이었으나, 신라의 시중은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직책이다. 처음에는 중시였으나 747년 경덕왕 때 시중으로 바뀌었다.

419) 지금의 죽령으로 추정된다. 죽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경계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고개이다.

420) 부여(扶餘) 가림성(加林城)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과 장암면에 걸쳐 세워진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축조된 산성이다. 우리나라 사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CUCKOO

원하는 쿠쿠제품을 마음껏



# 신년맞이 실프라이즈

기간 | 12.30.2022 - 01.27.2023  
조건 | 기간 내 주문 & 1월 내 설치



미네랄 풍부  
나노 포지티브  
필터 정수기

쿠쿠 전제품  
구매 가능!

## 매장고객 특별혜택

1건 렌탈 / 구매 시

UP TO \$200 VOUCHER

쿠쿠 아메리카 온라인 바우처

3건이상 렌탈 / 구매 시

UP TO \$600 VOUCHER

쿠쿠 아메리카 온라인 바우처

2건 렌탈 / 구매 시

UP TO \$400 VOUCHER

쿠쿠 아메리카 온라인 바우처

### 온라인고객 특별혜택

직영몰 (CUCKOORENTAL.COM) 제품 구입 시  
최대 \$200 필터구매 보조금 증정

적용제품 : 100° 끓인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버블클렌저, 핫드라이어

### 복수구매 혜택

버블클렌저 / 비데  
30% 할인

2/4/6/8 대패 구매 시 적용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 시 지급된 혜택은 회수됨
- 프로모션 제외 상품 : LED 마스크 2종

- 바우처 사용처 : Cuckoo Electronics America (cuckooamerica.com)
- 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5월 31일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2023년 부동산 마켓 현황

2023년이 밝았다!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은 “2023년 부동산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연초가 되면 당연히 받는 질문들이다.

부동산 에이전트 30년을 맞는 해로 지난 30년간에 미국 부동산 마켓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 드리고 2023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항상 부동산 마켓을 보려면 금융 이자율을 먼저 봐야 한다. 항상 부동산 마켓은 금융 이자율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1990년대를 보면 평균 이자율이 10.13% 였다가 1998년에 7%가 되었다. 1990년대는 부동산 마켓은 1997년까지 안 좋았다가

1998년부터 이자율에 도움을 받아 호황을 누렸다.

2000년대 금융이자는 대강 8% 에서 5%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야말로 탄탄 대로를 걸던 미국 부동산은 2008년에 서브 프라임을 맞았다.

2010년에 이자율은 4.67%, 2011년은 4.45%, 2012년은 3.66%, 이자율 덕분에 2012년부터 부동산 마켓은 다시 호황을 누린다.

그게 10년을 갔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 후반에는 이자율이 2%까지 내려 갔다. 이자율과 서브프라임 때에 내려간 부동산 가격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동산이 호황이었다.

거기다가 2020년에 팬데믹은 주택에 의미

를 더욱 뜻 깊게 해 주었다. 이제는 집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 갔다.

2021년 살짝 올라 가던 이자율이 2022년에는 네번이나 올라 가면서 이제 6% 가까이 까지 갔다. 이자율 인상에 힘을 입어 다행이 집이 하나가 나오면 10개 이상씩 들어 가던 오피스에 행진을 중단 시킨 게 현재 현실이지만 집은 여전히 잘 팔린다.

이유는 매물이 여전히 모자란다. 예전에 집 하나가 나오면 10개에 오피스 중에 산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그 나머지에 바이어들은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한다.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낮은 이율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에 고가 이율을 내면서 까지 팔고 싶지 않다.

매물이 싸야 집값이 내려 가는데 매물이 없다는 게 현 마켓에 큰 영향이 많다. 2023년에는 아마도 한두번 더 이자율이 올라 갈 것이다.

7%를 넘기지 않을까 싶다.

내가 아무리 중계인 일을 하고 있어도 집값은 좀 내려 가야 한다. 하지만 렌트를 내는 게 나가는 아니면 내 집을 갖고 모게지를 붓는게 맞는가라고 물으신다면 내 대답은 항상 남의

모게지 내 주시는 건 아니지요.

2023년 아직 집을 장만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능력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 하시다. 딜을 잘 하셔서 집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모게지는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찾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본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월 15일 - 1월 2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지레짐작하지 말고**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19일 길일. 15, 21일 주의.

**소띠 |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운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취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애정: 잘 보이거나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범띠 |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전: 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는 사람을 택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득이 됩니다. ●애정: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숨바꼭질하다가 드디어 원하는 것을 찾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21일 길일. 15, 17일 주의.

**토끼띠 | 노선을 분명히**

●운수: 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도 드러내고 감정표현을 조심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용띠 | 미운 정 고운 정이**

●운수: 버리고 버려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된 것을 보면 마음마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예상했던 것과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의외로 부딪치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애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뱀띠 |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운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금전: 체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관참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최선의 결과가**

●운수: 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맘 풀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단골손님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만한 일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뜻밖의 행운이**

●운수: 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애정: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원숭이띠 | 마음처럼 쉽지 않고**

●운수: 될 수 있으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 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닭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운수: 갈등을 피하기려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다른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씩 생각해지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이제야 빛을 발하게**

●운수: 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마음이 통하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1일 길일. 18, 19일 주의.

**돼지띠 |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하게 됩니다.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정: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법 및 상속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장님  
구합니다. (경험자 우대)  
Tel. 781-762-1700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캐슈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첩보극의 화려한 장르 변주... 영화 '유령'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조선의 항일단체인 '흑색단'이 도처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 경성. 조선총독부 신임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다.

신임 총독은 흑색단이 총독부에 심어 놓은 비밀 요원 '유령'을 살살이 찾아내 처단할 것을 지시하고, 총독의 새 경호 대장 '카이토'(박해수분)는 외딴 호텔로 용의자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아 색출작업에 나선다.

명문가 군인 출신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다 한직으로 쫓겨난 통신과 감독관 '준지'(설경구), 조선 최고 재력가의 딸로 통신과에서 암호문 기록을 담당하는 '차경'(이하니)은 용의자로 강한 의심을 받는다.

여기에 호텔로 끌려온 당혹스러운 상황에도 기죽지 않는 정무총감 비서 '유리코'(박소담), 통신과의 천재 암호해독관 '천계장'(서현우)도 카이토가 과놓은 함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과연 누가 흑색단의 비밀 스파이 '유령'인가.

영화 '유령'은 이같이 '유령'의 실체를 쫓는 첩보 심리극으로 시작한다. 용의자들은 마치 치열한 심리게임을 벌이듯 의심과 견제를 반복하며 극적 긴장감을 키운다.

경호대장 카이토의 회유와 협박으로 한데 모인 용의자들은 권총의 위협 앞에 신분이 노출될 위기를 맞고 긴장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영화를 지배했던 치밀한 심리극은 강렬한 액션 장르로 빠르게 전환한다.

준지와 차경 등 남녀 캐릭터 사이에 벌어지는 격투 장면은 호쾌하다. 힘의 대결, 주먹의 세기로만 보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투 장면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다.

설경구는 11일 언론시사회에서 격투



장면 촬영 때를 떠올리며 "이하니 배우 때문에 힘에 부쳐서 많이 좀 버거웠던 거 같다"고 웃었다.

이하니도 "'역도산'하고 같이 붙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다"며 호응했다. 역도산은 과거 설경구가 동명의 영화에서 연기한 일본 최고 프로레슬러다.

영화에서는 설경구부터 서현우까지 다섯 캐릭터의 연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갖가지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유령'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이들을 깨우는 카이토 역의 박해수는 악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기생충'(2019)에서 영악한 기정 역의

박소담이 극 중에서 보여주는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은 관객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하다.

영화 '유령'은 범죄액션물 '독전'(2018)을 연출했던 이해영 감독의 5번째 작품이다. 장르물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이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사한다. 영화 속 색감은 화려하고 도드라진다. 음악은 웅장함을 더했다.

이 감독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빛이 나고, 배우들의 호연이 이야기의 모든 구심점 역할과 개연성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돌아봤다.

18일 개봉. 132분. 15세 이상 관람가.

## 블랙핑크,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에 헤드라이너로 출연

(서울=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걸그룹 블랙핑크가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선정돼 무대에 오른다.

코첼라는 10일(현지시간) 블랙핑크가 올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블랙핑크는 2019년 코첼라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고, 4년 만에 다시 이 음악 축제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나게 된다.

블랙핑크는 인기 라틴팝 래퍼 배드버니, 힙합 스타 프랭크 오션과 함께 헤드라이너로서 코첼라 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헤드라이너 역할은 해당 음악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기대를 모으는 팝스타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는 인기 아티스트 해리 스타일스와 빌리 아일리시

등이었다.

연예 매체 헤드라인은 블랙핑크가 K팝을 대표해 코첼라 무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7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사십년지기 어릴 적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각자 자기 일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훌쩍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나대로 글을 쓰고 여행을 하며 사진을 담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친구는 친구대로 세탁 비즈니스를 여럿 갖고 있어 바쁘게 일하고 성실하고 보람있게 사는 멋진 친구다. 이 타국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서로 바쁘니 때로는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서로 보채거나 재촉하는 일이 없다. 무슨 바쁜 일이 있겠거나 하고 기다리다 연락이 오면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또 반가워 화들짝 화답한다. 삶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 좋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좋은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매처럼 정스런 친구다. 이렇게 지내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꽤 많다. 나이 들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평생에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이쯤에 가만히 생각하니 내 인생의 반은 성공한 셈이다.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얼굴을 마주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 갖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보따리를 편안하게 펼쳐놓을 수 있으니 속이 뽕~뽕된다. 서로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보따리를 쌓았던 보자기는 툭툭 털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착착 개켜놓는다. 서로에게 '인생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 힐링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마냥 깔깔거리며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는 말괄량이였다. 내가 미국에 먼저와 2년을 짝꿍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후 몇 년 후에 친구도 미국으로 시집을 왔다. 그때를 생각하니 시댁 가족들이 많아 버거울 때에 친구가 곁

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든든했던 때였다. 친구 역시도 내가 곁에 있어 견딜 만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이겨낼 힘을 주었다. 30년이 다 지난 때를 생각하니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다.

"내가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하고 친구가 며칠 전 만났을 때 전해준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겨울 친구를 생각하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짐작으로도 알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를 잘 아는 친구는 내가 아무 곳에서나 힘들거나 버거움을 표현하지 않을 거란 것까지도 알기에 말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에도 평정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는 세 아이가 있기도 했지만, 사십년지기 친구가 곁에서 든든하게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삶을 보며 때로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지만, 잘 견뎌주니 고마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

고 지내는 세월이다. 생각해 보면 삶은 돌고돌아서 내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으며, 친구가 기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음이다. 이처럼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새옹지마(塞翁之馬)란 옛말이 있지 않던가.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며, 그것이 또한 내일의 나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는 것이다. 삶이 서로 다른 만큼이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햇살 고운 날에는 햇살이 좋아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기다림을 배우니 감사한 날이지 않은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지난 따스한 날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고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 대로 감사한 날이지 않던가.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2023년 검색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천병상, 행복 중에서)

올 한해 행복했나요? 작년 말 한국 어느 구청소식지 타이틀이란다. 그런데 작년 2022년은 무슨 해였더라. 임인壬寅년이고, 호랑이 해였다. 호랑이도 행복했을까? 행복해 웃을 수 있었을 것인가.

십이간지十二干支중 호랑이는 야생동물이다. 상상의 동물인 용을 제외하곤 뱀 역시 야생이다. 그

외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소와 말과 돼지가 그러하고, 토끼와 닭과 개와 양이 또한 가축이다. 원숭이야 인간과 친숙하다. 쥐는 가축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가까이 서식한다.

올해는 계묘癸卯년 토끼해이다. 이젠 정월이고, 영어로는 January이다. 이름 치고는 기막힌데, 야뉴스에서 온 말이라 했다. 두개의 문문이라는 뜻이란다. 얼굴 하나는 과거를 성찰하고, 다른 얼굴은 미래를 전망한다나. 그런데 야뉴스식 이름과 뜻은 미련이 남아 자꾸 뒤돌아 보는 느낌이다.

한국에선 정월이 되면 시무식이 있다.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을

알리는 거다. 더이상 과거와 연결은 없는데, 이미 지난해에 청산되었다는 말일게다. 12월 선달 망년회와 송년회가 예식의 일환이다. 털어 버리겠다는 의지랄까?

새해엔 어떤 검색어가 빈도 높을 것인가. 부디 행복한 검색어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토끼 털마냥 부드럽고 온순한 검색어 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하시라.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마태 13:16, 공동번역)

2022년 구글 검색어라 했다. 빈도가 높은 순서인데, 기후변화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앞장을 섰다. 이어 초단기 강수 예측, FIFA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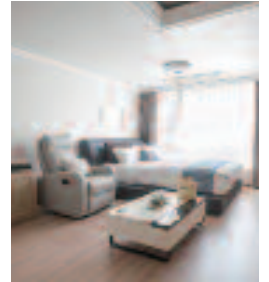
태원 사고가 뒤를 잇는다. 월드컵 뉴스를 제하곤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검색어는 찾기 어렵다. 돌아간 천병상 시인의 시 구절이다. 제목이 행복하다.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경보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압 변화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기온 변화로 혈압이 상승해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규영과 장의 도움을 받아 한랭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상의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랭질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절기(2021.12~2022.2)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9명 등 모두 300명으로, 직전 절기(2020.12~2021.2)보다 환자수는 31% 감소했고, 사망자는 27%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7.7%로 가장 많다. 한파에는 무엇보다 체온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체온증은 한랭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심한 오한이 발생하고 점차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저체온증은 일반인은 물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더 위험하다. 만성질환자는 혈관수축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노인은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사율이 떨어져 체온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한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신체는 체열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혈압이 1,520mmHg까지 상승해도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약해져 정상혈압보다 4-5배 가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 심근경색도 한파로 인한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된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 혈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심장 혈관 내 죽상경화반 과열을 일으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온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저체온증과 심뇌혈관 질환은 기온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털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방한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체온 유지능력과 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평소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18~20도)으로 유지하고, 내복과 가벼운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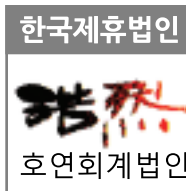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물을 잘 안마시게 되는데 이 경우 혈액 점성이 높아져 심뇌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경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PREMIER  
WORKS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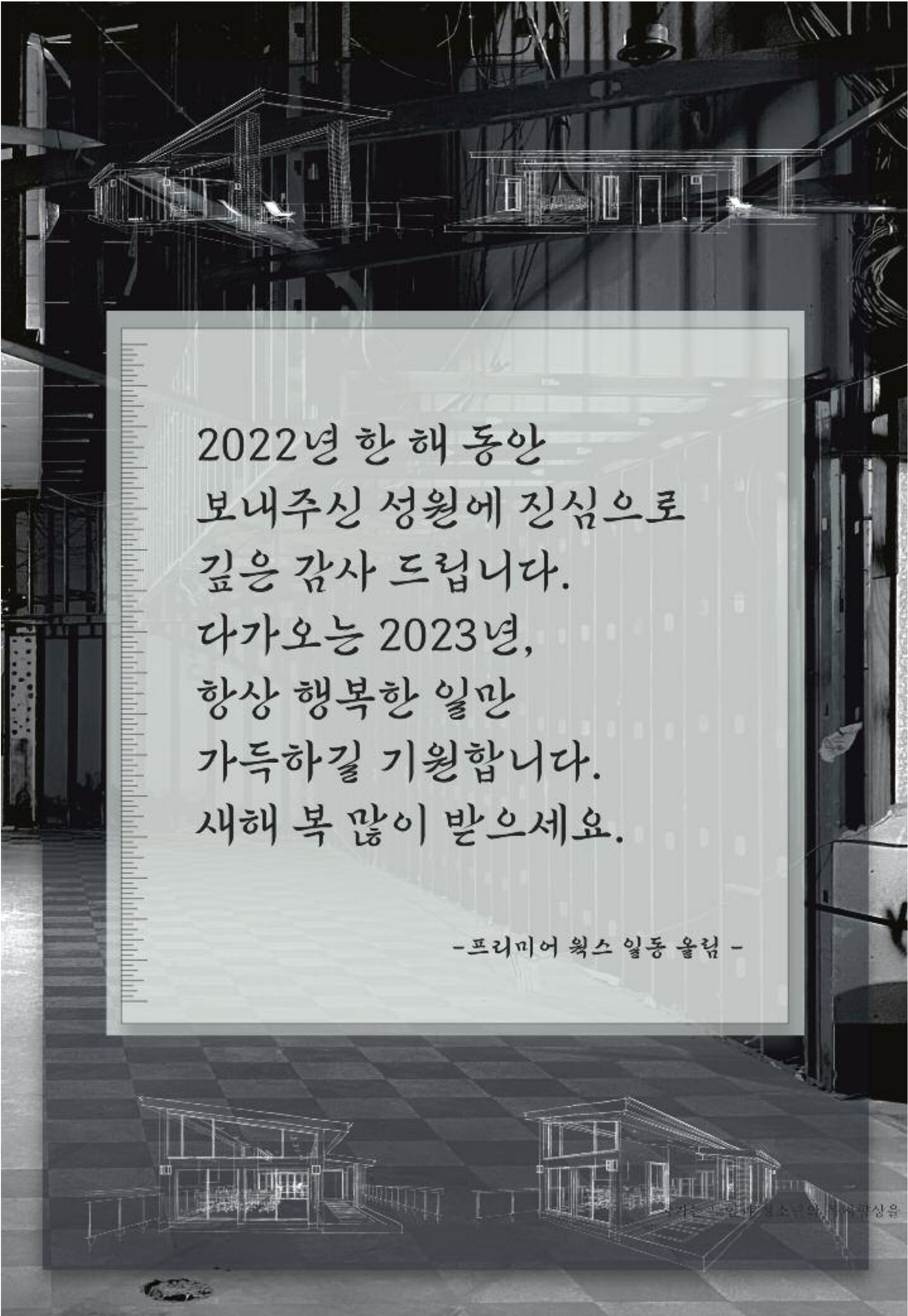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202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리미어 워크 일동 올림 -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World Headquarters  
Long Beach, California

## 터보에어 서비스 테크니션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제조사로서 성장한 터보에어 그룹은 미국 시장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과 성실을 겸비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분야의 관심과 재능 있는 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무경험자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내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 근무지역: 미주 전 지역 Orlando FL / San Francisco CA / Greensboro NC / Mobile AL / Boston MA
- 혜택 의료보험 (Medical, Dental, Vision), 유급휴가, 통신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Cash matching program 등
- 연락처 Email. kay@turboairinc.com Tel. 305-397-0793 (Text only. 562-922-4141)